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 발전부문에서 분리·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전회사 가운데 하나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이곳은 당진화력본부와 울산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일산열병합발전처 등을 운영하면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만에 하나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일산열병합발전처(처장 김치완)는 어느 곳보다 남다른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9배수를 인증받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를 찾아가 봤다.

# 시스템 안전관리로 무재해 실현 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매진

지난 1996년 준공된 일산열병합발전처는 90만kW의 전기 생산설비와 일산 신도시 일원의 17만 세대를 대상으로 715Gcal/hr를 공급할 수 있는 난방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곧 발전처의 안전이 일산 시민들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곳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2년 7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고, 2010년에는 K-OHSMS 18001의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곳에서는 현장안전관리 현안회의(SAFETY FIRST MEETING)를 실시하는 한편 타사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Safety Alarm'을 발령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 계절별·특정시기별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등 상황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공생협력의 안전관리 전개

이곳 안전관리활동은 사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처내 협력회사와 함께 안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재난안전사고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및 협력회사 합동 긴급복구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산재예방결의대회 등의 안전보건활동도 협력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공생협력프로그램 수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이곳의 상생 안전관리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또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 노사 합심으로 무재해 실현

이곳 관계자들은 무재해 19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노사 합심을 가장 먼저 꼽는다.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노사의 의지가 이곳 안전관리에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문서화하는 가운데 연중 계속해 실천 상황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노사 합심으로  
무재해  
19배 달성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자동 제세동기 현장 배치 (4곳), 체지방분석기 배치(1곳), 석면지도 작성 등의 안전활동 모두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가 있기에 가능했다.

물론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안전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곳 근로자들은 작업 전 TBM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무재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가연성 설비를 취급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면서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있기도 하다.

빈틈없는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와 노사는 물론 협력사의 공생도 추구하는 한국동서발전(주) 일산 열병합발전처. 이곳의 안전관리가 지속된다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무재해 20배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미니인터뷰



김치완 처장

### 안전의식 제고 통해 재해 예방해야

드넓은 공간에 복합적인 시설 그리고 각종 설비가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발전소입니다. 이말은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발전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은 한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에 안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부터 근로자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만 사업장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